

지중해의 통로 사르데냐의 이주: 역사적 배경과 최근 동향

장수현(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 들어가면서

사르데냐(Sardegna) 섬은 독특한 전통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이탈리아 자치주의 하나이다. 지형학적으로는, 지중해 해역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corridor)로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바로 북쪽에 프랑스 영토인 코르시카(Corsica) 섬이 있고 동쪽으로는 최단 거리로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탈리아 본토가 있다. 남쪽의 북아프리카 해안까지는 불과 184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곳은 국경지대(border region)이면서 경유지대(transit region)이라 할 수 있다(Gentileschi 2005).



이 섬은 시실리에 이어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면적은 24,000km²로 제주도의 13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구는 2016년 현재 165만 명으로 제주도의 2.5배에 불과하여 인구밀도 면에서 제주도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사르데냐의 이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르데냐 섬의 이 두 가지 대조적인 특징 때문이다. 지중해 해역의 통로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것은 어떤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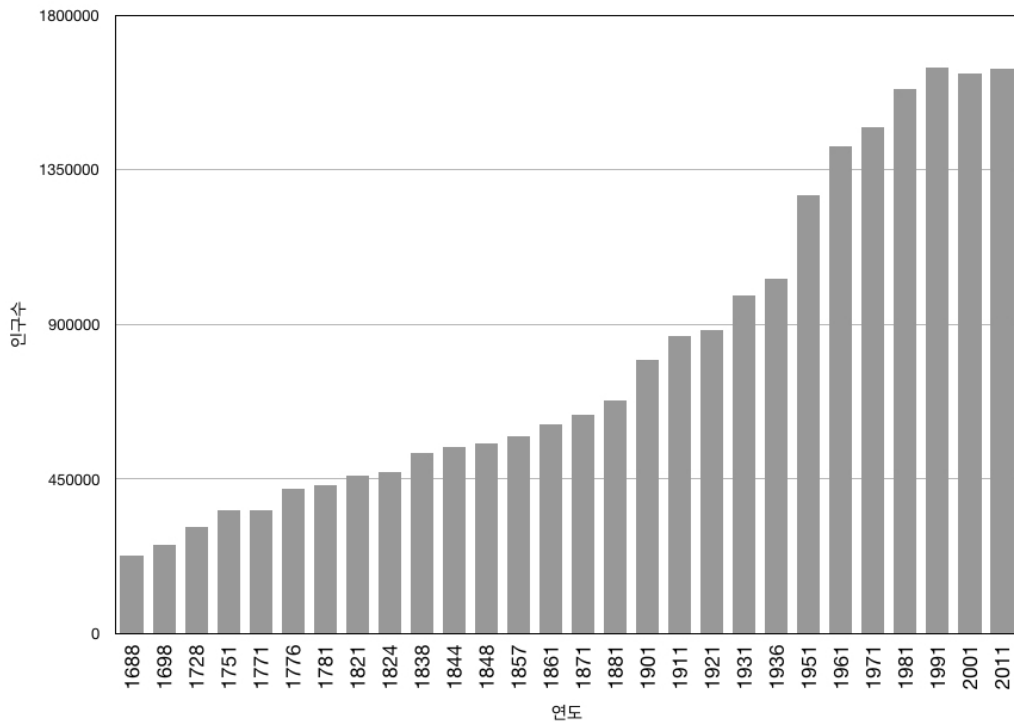
인들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주 패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특히 제주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섬이 최근 들어 제주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도시 인구를 흡수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우선 사르데냐의 장기적인 인구 변동 추세를 살펴보고 그것이 시기별 이주 패턴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와 극심한 고령화를 앓고 있는 이 섬의 미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이주민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제주도와 사르데냐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사르데냐 사례가 제주도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2. 장기적 인구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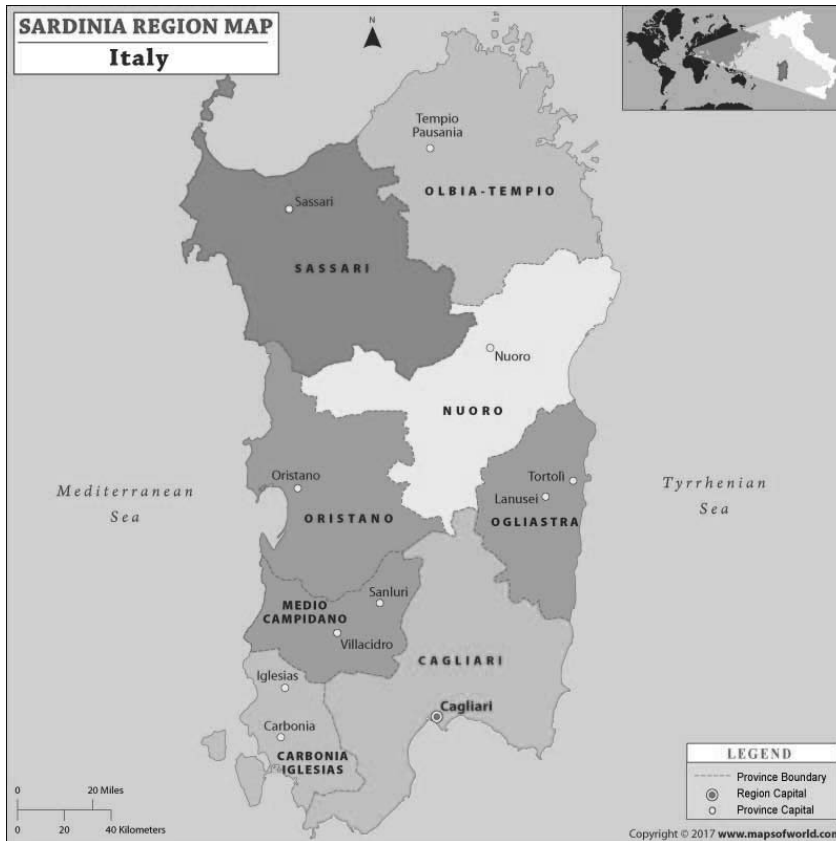
사르데냐는 시실리에 이어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적고 척박한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부터 이 섬의 인구 규모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까지 섬 인구는 30만 명 선을 넘지 못했는데, 이는 자원의 부족뿐 아니라 특히 북아프리카에 근거지를 둔 해적들의 빈번한 약탈, 해안 습지를 중심으로 만연한 말라리아,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Corsale 2016: 64-66).

사르데냐 인구, 1688~2011년



출처: Corsale 2016, p. 69 의 표

섬 인구는 18세기 들어 처음으로 30만 명 선을 초과했다. 이후 시기에 따라 외지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높은 자연증가율에 힘입어 꾸준하게 늘어났다. 19세기 중반에 50만 명 선을 넘어선 섬 인구는 1936년 인구조사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돌파했다. 공식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최고 정점을 찍은 해는 1991년으로 사르데냐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는 165만 명에 달했다. 그 뒤로 인구 규모는 큰 등락 없이 160만 중반 선을 유지하고 있다.¹⁾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은 덕택에 전체 인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볼 때 근대 이전까지 사르데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안보다 내륙에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섬은 고대로부터 많은 외부세력의 침입을 받았다. 페니키아, 카르타고, 로마, 반달족, 비잔틴 제국, 피사와 제노바, 카탈루냐와 스페인, 피드몬트 등이 이 섬을 정복하여 지중해 해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교두보로 삼았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사르데냐 전체를 식민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토착민 대다수는 약탈과 말라리아를 피해 외부세력의 접근이 쉽지 않은 내륙 고지대에서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

1) 이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Sardinia>를 참고하라. 2011년 인구는 164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몇 년간 미미하긴 하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ISTAT)에 따르면, 2015년 인구는 1,663,286명을 기록했다.

며 살았다. 로마제국 치하에서조차 내륙의 토착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는 이뤄지지 않았다.²⁾

로마 멸망 이후에도 수 세기 동안 해적들의 빈번한 약탈과 해안에 만연한 말라리아 탓에 해안보다는 내륙 산악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19세기 때부터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지중해 해역에서 해적들이 사라졌고 해안 주민들을 괴롭혔던 말라리아 또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점차 퇴치되면서 해안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증가했다.

특히 섬 남부의 항구도시 칼리아리(Cagliari)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로 부상했고 북부 해안에서 가까운 사싸리(Sassari) 등 다른 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칼리아리와 사싸리의 인구는 각각 1861년 37,200명과 25,600명에서 1936년 98,000명과 54,900명으로 늘어났다(Corsale 2016: 66-67).

20세기 후반부에 접어들어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³⁾ 인구의 해안 집중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과 목축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내륙을 떠나 해안 도시들로 이주하면서 내륙지역은 심각한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안게 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이 추세가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칼리아리, 사싸리, 올비아(Olbia), 그리고 북동부와 동부 해안지역의 관광지들을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일부 내륙 코문들의 경우에는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Corsale 2016: 68-72).

3. 시기별 이주 패턴

이탈리아는 1876-1975년 기간에 전체적으로 2천7백만 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고 1955-70년 기간에만 무려 2천5백만 명이 도농간, 남북부간 이주에 참여했다(Carboni and Foies 2016: 99). 사르데냐의 경우, 고립된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주 시기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한 농업 중심의 다른 남부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구가 국내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사르데냐의 이주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2)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야. 우린 스스로를 지킬거야. 로마인들에 대항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린 늘 그래. 알다시피, 로마제국조차도 이 산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Sorge 2015: 4)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내륙 산악지역의 목축민들은 자신들이 로마군의 침략을 버텨낸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자신들이 진정한 사르데냐인이라고 믿는다.

3) 사르데냐는 시실리 섬에 비해서도 도시 개발이 해안지역에 훨씬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이 섬의 내륙이 대부분 산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함께 초국적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북동부 해안의 코스타 스메랄다(Costa Smeralda)와 같은 해변 리조트 건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연관되어 있다(Fiorini 2016).

3-1.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사르데냐의 이주 물결은 다른 남부 지역들보다 이삼십년 늦은 1890년대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 1896년과 1897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1년당 2천명이 넘었다. 이들은 대부분 장인, 광부, 농업노동자들이었는데,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와 알제리로 계절적 일자리를 찾아 떠난 사람이 가장 많았다(King and Strachan 1980: 210). 북아프리카 이외의 지역 중에서는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가 주된 목적지였으며 아르헨티나 등 미주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⁵⁾

이 이주 물결은 주로 북서부의 로구도로(Logudoro)와 보사(Bosa)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906-14년 사이에 이 지역을 떠난 사람은 12만 명 남짓이었다. 당시 사르데냐는 농목축업 중심의 경제토대가 취약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치즈, 가죽, 코르크, 광물 등 주요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1920년대 중반부터 해외이주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Aru 2016: 87-89).

3-2. 전후 시기

1930년대와 40년대에 농업기금이 축소되고 목축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어지면서 사르데냐의 농업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1960년대 들어서도 섬 자체의 자원 및 생산구조와 동떨어진 석유화학산업 위주의 발전 전략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 또한 성장의 폭이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줄어든 농업부문 고용을 2차산업 부문이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1950년대부터 대량의 이주가 발생했다. 전후 시기 전체를 통털어 사르데냐를 빠져나간 사람은 120만 명에서 1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1955년부터 1971년까지 16년 동안만 최대 40만 명이 국내외로 이주했다.⁶⁾ 섬 내부적으로는 도시 산업 중심지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Aru 2016: 89-91).

전후 사르데냐에서 이주가 하나의 현상으로 부각된 것은 1955년 이후의 일로 남서부에 위치한 술치스-이글레시엔테((Sulcis-Iglesiente) 지역이 그 진원지였다. 석탄, 납, 주석 광산이

4) 해외 이주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은 1843년 알제리로 이주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Aru 2016:85).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기 전까지는 1년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이주에 불과했다. 이들은 칼리아리 항구를 통해 주로 북아프리카의 튀니스와 알제 등지로 나갔다(King and Strachan 1980: 210).

5) 공식적으로 기록된 남미 지역으로의 첫 번째 이주는 1882년에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사르데냐 남부 마을의 서른 여섯 가족이 플랜테이션과 철로 건설 분야에서 일하러 남미로 떠났다(Unali and Mulas).

6) 이 수치는 1971년 사르데냐 인구의 27%에 해당하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주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King and Strachan 1980: 212).

밀집해 있던 이 지역에서 1951과 1961년 사이에 고용의 41%에 해당하는 11,600개의 광산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을 구성하는 19개 코뮌의 인구가 25% 줄어들었고, 1961-71년 기간에 다시 22%가 더 감소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로렌(Lorraine) 지역의 탄광으로 갔다. 1955-62년에 프랑스로 이주한 사르데냐인은 2만2천명에 달했다. 1960년대로 접어들어 이주 붐이 본격화되었다. 이주의 진원이 광산지대에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어 60년대 초기는 곡물생산 위주의 구릉지대 농민들이 많이 빠져나갔으며 1960년대 후반이 되면 고산지대인 바르바지아(Barbagia)의 목축민들 중에서도 이주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King and Strachan 1980: 210-21).

국내 이주와 해외 이주로 나눠볼 때, 전후 시기는 국내 이주의 비중이 커졌다. 1951-71년 기간 이주자 총 40만 명 중에서 이탈리아 타지역으로 나간 사람은 30만여 명인 데 비해, 해외 이주자는 9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로 접어들어 공업이 발달한 이탈리아 북부의 고용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북부 도시들로의 이주가 크게 증가했고, 그만큼 해외로의 이주 흐름은 약화되었다. 사르데냐인 이주민들이 선호한 지역은 사르데냐와 역사적 관련성이 깊은 피드몬트(Piedmont)와 리구리아(Liguria)를 비롯해서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롬바르디(Lombardy), 투스카니(Tuscany), 라티움(Latium), 캄파니아(Campania) 지역이었다. 농촌지역에 정착한 사람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톨리노, 제노바, 로마 등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로 이주했다(King and Strachan 1980: 210).

이 시기 해외 이주지로는 북아프리카 대신 유럽이 중심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 이주자 중에서 약 93%가 유럽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르데냐인들은 유럽 국가 중 프랑스를 가장 선호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독일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직업적 구성 면에서 볼 때, 초기에는 비숙련 단순노동 종사자가 많았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노동 숙련도가 높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섬 내부적으로는 칼리아리, 오리스타노(Oristano), 사짜리, 포르토 토레스(Porto Torres) 등 산업이 발달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구 흡인력이 가장 컸던 곳은 수도 칼리아리였다. 칼리아리 인구는 1951년 약 14만 명에서 1961년 약 18만 명, 1971년 약 22만여 명으로 증가했다(King and Strachan 1980: 213).

1970년대로 들어선 이후에는 해외 이주 물결이 상당히 약화되어, 1972년을 기점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보다 귀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사르데냐 경제상황의 호전 덕택이라기보다는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외 취업 기회가 줄어들면서 영구적 이주 대신 일종의 “왕복”(round-trip) 이주, 즉 섬 외부와 내부를 돌아다니며 거주하는 순환적(rotational) 이주 형태가 늘어났다(Aru 2016: 92-93).

3-3. 최근 추세

사르데냐 인구는 2002년 1,630,847명에서 2013년 1,663,859명으로 늘어났다. 이 시기 자연증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섬을 떠난 인구보다 들어온 인구가 더 많았음

을 알 수 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해외보다 국내 이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내 타지역에서 들어와 거주등록을 한 사람과 사르데냐를 떠나면서 거주등록을 취소한 사람은 각각 376,899명과 372,890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이와 달리, 사르데냐와 해외지역 간의 이주는 전입(54,900명)이 전출(19,602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Aru 2016: 94).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다시 외부를 향한 이주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013년 SVIMEZ (Association for Southern Italian Develop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에 섬을 떠난 사람은 약 6천6백 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18세에서 34세이고 대부분 술치스(Sulcis)와 누오로(Nuoro) 지역 출신이다. 섬 내륙 소도시들의 장기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및 해안지대로의 이동이라는 양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목적지는 이탈리아 북부지방, 특히 밀라노가 많았으며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600명 정도 있었다.

해외 이주 역시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졌다.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은 5,945명에서 4,361명으로 감소한 반면, 해외로 나가면서 거주등록을 취소한 숫자는 1,485명에서 2,593명으로 증가했다. 해외 이주는 독일과 프랑스로 나가는 사람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그 뒤를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잇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은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로의 이주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이주 흐름은 단순한 고학력자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이 아니라 3차산업 부문의 위기, 인플레이션, 취업난, 그리고 산업시설 폐쇄에 따른 고용 악화 등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Aru 2016: 94–95).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이다. 과거에는 사르데냐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 국제적 이주자가 많지 않았다. 사르데냐에 입항한 외국인들은 임시거주증을 받은 다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Gentileschi 2005). 1970년대 후반 무렵부터 특히 모로코인을 비롯한 일부 북아프리카인들의 정착 사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규모는 무시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주민의 존재가 눈에 띄게 커졌다.

사르데냐 외국인 주민의 절대숫자와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3년 사르데냐의 외국인 주민은 35,600명으로 이는 섬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한다. 외국인 비율이 이탈리아 20개 주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1991년의 수치가 각각 7,253명과 0.4%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적인 증가세라 할 수 있다. 국적별 구성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북아프리카 출신이 대다수였지만 그때부터 동유럽 출신이 서서히 늘어나 지금은 루마니아인이 1위를 점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루마니아인은 총 9,654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모로코(3,884명), 세네갈(2,793명), 중국(2,699명), 우크라이나(1,681명)가 잇고 있다.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관광 등 3차산업이 발달한 남부의 칼리아리와 북동부 올비아-템피오(Olbia-Tempio) 지역에 약 60%에 가까운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Carboni and Fois 2016: 101–103).

4. 미래를 위한 고리로서의 이주민

사르데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다. 섬 인구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Corsale 2016: 75). 사르데냐의 출산율(fertility rate)은 2011년 1.11에서 매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추정치는 1.07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001년 116.1%이었던 사르데냐 노령화 지수는 2011년 164.1%로 상승하여 전국 평균(148.7%)을 상회하게 되었다(Corsale 2016: 72).⁷⁾ 이 수치는 2013년 169.2%, 2013년 174.4%, 2015년 180.7%, 2016년 187.9%, 2017년 195.5%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이출 인구가 많은 내륙 마을들에서 더욱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사르데냐의 미래가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젊은 연령층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국내외의 젊은 이주민이 더 많이 섬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섬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이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 될 것처럼 보인다. 사르데냐는 2011년을 기준으로 부(wealth)의 수준에서 유럽 272개 지역(region) 중 190위를 기록했다. GDP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 역시 2007년 61만 개에서 2013년 55만 개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실업률은 7%에서 17.5%로 상승했다(Carboni and Fois 2016: 104).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명성 또한 섬의 젊은 연령층을 붙들어두거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젊은 이들을 불러들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르데냐에서는 1960년대에 해외자본에 의해 코스타 스메랄다(Costa Smeralda)에 대단지 리조트가 건설된 이후 이를 본뜬 관광개발 프로젝트들이 여러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다. 개발 광풍은 일부 해안지역, 특히 올비아-템피오, 칼리아리, 사짜리 지역의 해변에 집중되어 이곳에 많은 휴양객용 아파트나 주택이 지어졌다(Perelli 2016).⁸⁾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섬의 딜레마는 관광산업이 이 일부 지역의 해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르데냐를 찾는 관광객은 2012년의 경우 입도 인원 기준으로 212만 명이었고 숙박일 기준으로는 천만이 넘는다.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숙박일 기준으로 6대 4 정도이며 외국인 관광객은 유럽 국가들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관광시즌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관광객의 80% 이상이 이 기간에 주로 해변에서 휴가를 즐긴다(Iorio 2016: 225-226). 이처럼 공간적·시간적 차원에서 일부 장소와 계절에 집중된 관광은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낳을 뿐 아니라, 여름 몇 개월 동안만 관광객이 몰리는 탓에 관광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기대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최근 사르데냐 주정부가 “Endless Sardegna”라는 구호를 앞세워 해변 휴양지 이외의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7) 노령화 지수(aging index)는 유소년층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를 말한다.

8) 1993년에 처음으로 해안선 300미터 이내에는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어 일정 정도 난개발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는 있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⁹⁾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은 향후 사르데냐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는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점에서 외국인 주민은 사르데냐의 낮은 출산율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준다. 첫째, 이들의 평균 연령이 내국인 평균 연령보다 10세 가까이 낮다. 둘째,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이 사르데냐 여성들에 비해 훨씬 높다. 2012년 섬 전체의 출산율은 1.14인데, 외국인 여성과 사르데냐 여성은 각각 2.52와 0.9로 나타난다. 셋째,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생겨나는 노동시장의 틈새를 채워준다. 예를 들어, 일부 모로코 이주민은 젊은 연령층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들에서 행사 일을 하는데, 이들은 방문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¹⁰⁾ 외국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비슷하다. 사르데냐의 경우 여성 외국인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57%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폴란드 출신 이주민 집단에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여성들은 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 수요가 많은 가내 영역에서 일한다. 이들 덕분에 사람들은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 그리고 미흡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을 덜 수 있다(Carboni and Fois 2016).

5. 사르데냐와 제주도의 이주: 비교의 시각

제주도는 사르데냐와 비슷하면서 다르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소득 수준,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관광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지만 인구와 이주 패턴을 보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다.

사르데냐와 달리 제주도는 최근 들어 전체 인구와 순유입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는 2005년 55만8천 명에서 2015년 62만4천 명으로 12%의 증가했다. 또, 2010년에 처음으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진 이래 순유입이 계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¹¹⁾

전입자 중에서 대도시 출신과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전입인구의 이전 거주지 분포를 보면 서울 25.9%, 경기 27.1%, 부산 7.3% 등, 대도시 출신이 많다. 연령은 30대 22.6%, 40대 18.2%, 20대 18.1%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 중심의 이주 현상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노령화 지수를 일정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외국인 체류자 또한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2015년 현재 제주도의 외국인 체류자는 16,960

9) 여기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관광과, 바루미니(Barumini)의 누라게(Nuraghe) 유적 등 고고학적 유적지와 각종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0) 이에 대해서는 Bachis(2016)를 참조하라.

11) 최근 몇 년의 순유입 증가치를 보면 2013년 7,823명, 2014년 11,112명, 2015년 14,257명, 2016년 14,632명이다.

12) 제주도의 노령화 지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89.7%로 이는 사르데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명(제주도 인구의 2.7%)으로 이는 2005년 2,178명(제주도 인구의 0.4%)에 비해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외국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이주 패턴에서 이와 같은 차이점이 생기게 된 것은 무엇보다 2007년 올레길 개설을 계기로 제주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과 대안적 삶의 장소로 각인된 데 힘입은 바 크다. 1983년 100만 명 수준에 머물렀던 제주도 관광객은 2005년 500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 1500만 명을 돌파했다. 2016년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월별로 보면 최저 1월 6.6%부터 최고 8월 9.8%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사르데냐와는 대조적으로, 이처럼 일년 내내 꾸준하게 많은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숙소, 카페, 음식점, 수공예 판매 등의 생업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대안적 삶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생계 기회를 찾고자 하는 젊은 연령층이 선호하는 이주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최근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대규모 투자에 의한 과도한 상업화, 특정 지역의 관광객 포화 현상 등이 계속 진행되어 제주도가 갖고 있는 힐링과 대안적 삶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면 현재 제주도가 누리고 있는 상대적 우위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사르데냐 사례가 제주도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다.

[참고문헌]

- Silvia Aru, 2016, "Deserting the City and the Countryside": Socioeconomic Restructuring and Migration Process,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82-98.
- Francesco Bachis, 2016, "Transnational Migrations in Sardinia: Notes about Belongings, Boundaries and Tolerance," in *Intercultural Horizons Volume IV: Identities, Relationship and Languages in Migration*, edited by Eliza J. Nash, Nevin C. Brown and Lavinia Bracci,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115-126.
- Michele Carboni and Marisa Fois, 2016, The Foreign Presence in Sardinia,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99-111.
- Andrea Corsale, 2016, "Demographics of Sardinia: Main Features and Trends,"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64-81.
- L. Fiorini, et al., 2016, Urban development of the Coastal System of the Italian Largest

- Islands: Sicily and Sardinia, *Ocean & Coastal Management*,
<http://dx.doi.org/10.1016/j.ocecoaman.2016.12.008>
- Nick Gallent, 2015, "Bridging social capital and the resource potential of second homes: The case of Stintino, Sardinia," *Journal of Rural Studies* 38: 99–108.
- Maria Luisa Gentileschi, "The immigration model of Sardinia, an island and a border region", *Belgeo* [Online], 1–2 | 2005, URL : <http://belgeo.revues.org/12526> ; DOI : 10.4000/belgeo.12526.
- Gert-Jan Hospers, 2003, "Localization in Europe's Periphery: Tourism Development in Sardinia,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11, No. 6, pp. 629–645.
- Monica Iorio, 2016, Tourism in Sardinia: A Potential Yet To Be Achieved,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220–241.
- Russel King and Alan Strachan, 1980, "Patterns of Sardinian Migration," *Tijdschrijf voor Econon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71, No.4, pp. 209–222.
- Carlo Perelli, 2016, Coastal Planning and Tourist Development: Reframing Sea Paradise,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142–154.
- Antonio Sorge. 2015. *Legacies of Violence: History, Society, and the State in Sardini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Lina Unali and Franco Mulas, "Sardinian Immigration to the Americas since 1900 Projected into the Year 2000"

■ abstract

Migration in Sardinia as a Mediterranean Corridor: Historical Background and Recent Trends

Soo Hyun Jang
Kwangwoon University

Sardinia, as a Mediterranean corridor, is located at a strategic position, connecting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Italy to North Africa, and more remotely to Middle East. It is 13 times bigger than Jeju Island, but its population is only 2.5 times larger. What kept this island low in population density and how is it related to its migratory patterns? In what aspects does it differ from Jeju Island in migration patterns? Does it show a similar trend to Jeju Island that has in recent years attracted sizable young immigrants from urban areas? These are the questions I want to answer in examining Sardinia's long-term population changes, notable migratory patterns, and the immigrants issue that can have important bearings on the island's future, as it struggles to cope with the problems caused by its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